

“한 달 만원이면 네팔 학생 공부 가능”

향운사 자비공덕회, 60여 네팔 어린이 후원

“저의 목표는 공립한 가족들을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는 강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저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 가난한 사람들이 허덕이는 것을 방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9월 22일 오전 10시, 북한산 자락 수유리에 있는 작은 암자 향운사에 30여 불자가 모여 네팔 학생에게 온 편지 내용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중풍을 앓는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책임지며 소년 가정으로서 어려움을 딛고 살아가는 사빈 당이(Sabin Danggi · 19) 군의 사연을 들으면서다.

이들 모임은 자비공덕회. 자신들이 매일 아침 집에서 남을 위해 기도를 하며 모든 성금으로 사빈군을 비롯한 네팔 학생 60명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자비공덕회(회장 명조)는 향운사 주지 명조 스님과 지상 스님의 원력으로 2009년에 설립된 작은 봉사단체다. 두 스님은 수유리에 있는 가정집을 개조해 법당 겸 숙소로 사용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명조 스님은 10년 동안 심장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모임을 이끌고 있다. 회원들은 명조 스님이 나눠준 ‘개인 보시함’을 받아 매일 아침 남을 위해 기도를 하고 보시함에 성금을 모은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보시함을 털어 향운사에 모여 ‘남을 위한 기도법회’를 갖는다.

회원들은 매일 넷째 주 토요일 10시 향운사 법당에 모여 명조 스님의 법문을 들

고 자비공덕회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한다.

“남을 돕는 일에 많은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모금 되는 즉시 실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첫 사업으로 네팔 어린이 학자금 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명조 스님은 심장병 환자 등 국내 어려운 이웃돕기도 생각했지만 30여 명이 모은 성금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다 마침 네팔관광청 한국 사무소장 케이피 시토울나(K. P. Sitoula)씨를 알게 됐고, “한 달에 1만원 정도만 후원하면 네팔 어린이 1명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비공덕회는 2010년 1월부터 네팔 동부 칸첸중가 기슭에 위치한 버드라칼리 학교에 다니는 12명의 네팔 어린이를 선정해 이들이 초·중·고 전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12명의 어린이는 자비공덕회가 네팔에 심은 최초의 ‘희망의 씨앗’이 된 셈이었다.

처음에는 기금이 적어 10살 이하의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 자비공덕회 취지에 공감한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모여 후원자는 현재 100여 명에 이르렀고, 60명의 네팔 학생이 12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명조 스님은 “처음 모임을 시작했을 때 심은 12명의 ‘희망의 씨앗’이 60명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보람과 행복은 진실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비공덕회 장학금 대상자 선발과 관리



향운사 자비공덕회는 2010년 1월부터 12명의 네팔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해 현재는 60명의 초·중·고 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사진은 2010년 10월 버드라칼리 학교를 방문한 자비공덕회 회원들과 명조 스님(두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는 매우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네팔 현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현지 주민 6명이 장학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어린이들의 가정환경, 학교성적, 품행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한국 자비공덕회가 송금한 장학금은 한국 자비공덕회와 버드라칼리학교 공동명의로 네팔 현지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은행계좌의 자금 인출은 학교장, 지역주민장학생 선발위원, 회계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된 자금은 매일 학생들에게 1000루피(한화 약 1만3000원)씩 지급되며, 학생들의 영수증과 은행잔고장은 자비공덕회에 보고하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네팔에 전해지자 거리가 먼 곳에서도 버드라칼리 학교 다니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케샤 사르마(Keshab C. Sharma) 버드라

칼리학교 교장은 자비공덕회에 보낸 감사편지를 통해 “이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고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오직 이곳 뿐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공부하고자 열망하는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며 “비좁은 컴퓨터 교실에서 4~12학년생들이 줄을 서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오전·오후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받고 있다. 많은 네팔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받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자비공덕회는 “장학생 수혜 대상자를 2013년부터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기금이 더 모이는 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비공덕회 후원: 국민은행 354601-04-080007 (예금주:자비공덕회)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buddhajb (02)905-7175

이냐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 정신 토대로 복지 모색”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설장 워크숍 개최

불교사회복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종단산하 사회복지법인 대표·시설장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조계종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장 성운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120여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장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지원 스님이 대독한 차사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굳건한 신심과 원력으로 복지터전을 일궈낸 결과 1200 복지시설과 100여 전문 복지관련단체, 수십만의 불교 자원봉사자들이 오늘날 대승불교의 실천 행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2의 도약기를 맞은 불교사회복지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민관·기업과 협력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양적 확산보다는 불교 유·무형적 자원을 토대로 불교복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혁 교수(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가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제’를,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과)가 ‘21세기 한국사회와 불교적 리더십’을, 최종한 사무국장(조계종 사회복지재단)가 ‘2012 국민의 선택, 불교 복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최종혁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무자들은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서비스 실천은 단일조직, 전문가에 의해 하기 보다는 다양한 조직과 상호 연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용 교수는 “불교는 초세간적 종교이기에 현실적인 복지에 무관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라며 “나눔과 보시에 의해 조직과 집단이 함께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불교적 리더의 근본자세”라고 설명했다.

이냐은 기자



이날 워크숍에는 조계종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장 성운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120여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장이 참석했다.

스님이 되고 싶은 청년을 도와주세요

생명나눔, 10월 선정환자 유동욱 씨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잠시 방향도 했지만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절에 다녀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다 출가를 결심했고 2010년 5월 서울서 고속버스를 타고 안동의 한 사찰로 향했다. 승복을 입고 책 몇 권을 싣고 다녔던 유동욱(남·31)(사진)씨는 갑작스런 버스사고로 유리창 밖으로 떨어져 뇌출혈을 입었다.



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적용도 못 받아 병원비를 본인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1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치료비와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어머니의 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소외계층·지역 다문화 어린이 함께해요

이웃을 돕는 사람들, 제3회 ‘성장희망 프로그램’ 실시

경블런(사)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지현)이 제3회 성장희망 프로그램(3rd WITH GROWING HOPE PROGRAM)을 개최한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10월 20~21일 동대문구 구립 ‘희망만들기 방과후교실’ 어린이들과 김천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 6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2012년 사회복지 및 NGO단체 공모사업 ‘저소득가정지원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행사는 도시의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방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인공으로 각자의 꿈을 계발하

는 기회를 갖도록 친교의 장(場)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어린이 직업체험센터 ‘키자니아’에서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희망직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이들은 어린이대공원과 아트센터 Y, 연화사 등에서 문화체험과 친교 시간을 갖게 되며 연화사 신도들 집에서 하루 저녁을 홈스테이로 보내게 된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갈수록 증가하지만 아직도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뿌리깊다”며 “긍정의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냐은 기자

전국 지적장애인 불링대회

이천시장애인복지관, 26일 미란다불링장서 연다

불링을 즐기는 지적·자폐성 장애 아파추어 선수들이 참여하는 ‘전국 지적장애인 불링대회’가 열린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태원)이 운영하는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신운화)은 10월 26일 오전 9시 경기 이천 미란다불링장에서 ‘제2회 전국 지적장애인 불링대회’를 개최한다.

이천시 미란다호텔, (주)빅텍 등 지역사회 기업과 유관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생

활시설 등 50개 기관에서 1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선수는 총상금 200만원의 걸고 개인 및 남녀혼성 게임에 참여하게 되며 개인당 3게임의 종합성적순으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및 전국 장애인들의 체력증진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031)637-6720 이냐은 기자



제7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THE 7TH World SUNCHA Culture Exchange Intercommunions

개막식 | 2012. 10. 18 9시 30분 ~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학술대회 | 2012. 10. 18 10시 30분 ~ 1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선차공연 | 2012. 10. 19 12시 30분 ~ 1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

주최 :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한국 국제선차문화연구회, 한국 (차의 세계) 잡지사
협력 : (재)명원문화재단, (사)국제차문화협력교류재단, 숙우회
후원 : 하동군, 보성군, 장흥군, 대한불교조계종, 국립국악원, 아모레퍼시픽
문의 : 02)747-8076